

여수시, '교통약자 편의 증진'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운영

교동·중앙시장·서시장·쌍봉·진남·도깨비시장 18명 2교대 배치

시내버스 이용방법 및 시간 안내·주변 청결활동 등 서비스 제공

여수시는 시내버스 승하차 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 승하차 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근로자 18명으로 구성된 승하차 도우미를 전통

시장 3개소(교동·중앙시장, 서시장, 쌍봉·진남·도깨비시장) 인근에 배치한다. 승하차 도우미는 배치된 승강장에서 근무복(조끼)을 입고 시내버스 이용방법 및 시간 안내, 주변 청결활동,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

자들에게 승하차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일 5시간씩 2교대로 운영한다. 시는 운영에 앞서 근무 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에 따라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 등 방역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몸짱 마음짱 행복짱'

'키움UP 체육교실'·'재미UP 미술교실'·'흥미UP 코딩교실'로 편성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난 1월18~29일 총 10일 동안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몸짱! 마

음짱! 행복짱!'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성료했다. 29일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키

움UP 체육교실', '재미UP 미술교실', '흥미UP 코딩교실'로 편성돼 학생들의 적성과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활동들로 구성됐다.

'몸짱! 마음짱! 행복짱!'은 코로나로 힘겨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만족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연계한 '흥미UP 코딩교실'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배우고, 미래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조인호기자

1004섬 신안군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간호사·사회복지사 읍면에 전면배치

신안군은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최일선 읍면사무소에 전면배치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갖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작은마을단위부터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서부터 불편함이 많은 만큼, 방문상담을 통한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 사례관리비 9천2백만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수리비 7천만원, 희망나눔지원사업비 2천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2천8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천3

백만원의 총 2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스위치와 리모콘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등교체지원사업,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위생적인 좌변기, 샤워기, 방충망 교체 등을 추진하고 응급재난과 취약계층의 긴급지원은 신안군복지재단의 3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마을단위에서부터 복지행정이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일선 공무원에게 당부하였다.

신안=이택주기자

구례군, 한파대비 건강취약계층 집중 방문건강관리 강화

구례군이 동절기 한파 피해가 우려되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2월말까지 비대면 집중 방문건강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례군은 4명의 방문전담인력 및 16명 담당공무원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가정에 수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한파대비 행동요령과 병관길 낙상예방,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한랭질환 증상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전화 및 문자로 실시한다. 김순호 군수는 “추운 겨울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집중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한파대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엔 가벼운 옷을 여러벌 겹쳐 입는 등 겨울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달라”고 당부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 예방 '앞장'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사업 주민 큰 호응

담양군이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 악화를 막고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1년에 1회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병원에서 정밀진단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도 지원한다.

담양군은 지난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2,879명에 대해 선별검사를 실시했으며, 치매확진자 176명을 발굴해 치료를 연계했다.

김순복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예방은 초기 단계에 발견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무료로 진행되는 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